

# 世界 各國史 연구도서 너무 부족하다

## 대부분 번역서 위주... 국내 연구자에 의해 씌어진 각국사 필요성 증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 세계 각국과의 다각적인 접촉이 활발히 전개되는 현실과 달리, 各國史에 관한 국내전문가의 연구성과가 태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세계사를 비롯해서 동양사나 서양사에 대한 개설서는 강단용으로 꾸준히 출간되었지만, 각국사에 대한 통사적인 개설서는 번역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서 위주의 각국사 출간은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별국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빨리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 ▲외국역사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그 나라 사학자가 쓴 역사서를 통해 그들의 역사인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또한 한 나라의 통사란 역사적 사실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 각 시대를 일관된 사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상기할 때, 외국의 학문업적을 '수입'하는 것이 국내 연구역량 부족을 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도 사실이다.

### 비판적 수용 요구되는 번역서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번역서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역사서는 중국이다. 「중국통사」(徐連達 외 지음, 국사편찬위원회, 1989)를 비롯해서 10여 종이 넘는 중국통사는 인류문명의 한 발상지로서 지속적으로 우리역사에 큰 영향을 끼쳐온 중국에 대한 관심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문명의 형성기로부터 사회주의 정권수립에 이르는 대화와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일본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연구서들은 반식민지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은 중국 혁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되는 일본은 「일본의 역사」(井上清 지음, 서동만 옮김, 이론과실천사, 1989)처럼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중국이나 한국같이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자생적인 근대화 성공하게 된 내적 동인을 통사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책들이 나와 있다. 해방이후 우리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온 미국에 대한 역사서는 「미국사신론」(V. 우드와스 지음, 박무성 옮김, 법문사, 1981) 「미국사의 구조」(A. 브리클리 외 지음, 박무성 옮김, 문맥사, 1987) 정도

에 그쳐 오늘의 미국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형성에 도움이 될 통사의 출간이 미진한 상태다.

유럽지역의 각국사는 번역서도 제대로 출간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앙드레 모리아가 쓴 「프랑스사」 「영국사」(신용석 옮김, 기린원) 정도가 통사로서는 대표적이다.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의 통사는 「소련사」(제프리 호킹 지음, 김영석 옮김, 흥성사, 1988) 「러시아의 역사」(C.H. 스이로프 지음, 기연수 옮김, 동아일보사, 1988) 정도가 출간되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의 급격한 개방과 개혁바람으로 우리와의 정치·경제적 교류가 활기를 띠면서, 한때 독서계를 풍미했던 '중국열풍'이 '동구열풍'으로 대체, 재현될 가능성마저 있다.

제3세계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통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동남아시아 현대사입문」(瀧川勉 외 지음, 편집부 옮김, 나남, 1983)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유지열 엮음, 이성과현실, 1989)와 같은 특정시기에 한정해 살펴본 불력史나, 「베트남민족해방운동사」(後藤政子 지음, 진경희 옮김, 미래사, 1985) 「버마현대사」(A.A. 라틴아메리카연구원 엮음, 소나무, 1989)의 경우처럼 혁명적 상황이나 그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그치는 역사서들이 출간되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와 교류가 극히 드문 이스라엘의 통사가 여러 종류 나왔다는 점이다. 기독교인들의 성경이해를 돕는 개설서 수준의 책과 중동문제의 근원을 파헤치는 연구서도 있다.

이와 같은 번역서들은 독자들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성숙한 안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사에는 일본고대의 한·일관계부분이 「任那日本府」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외국학자들의 통사는 기본적으로 자국민을 위해 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번역서들은 일반적으로 해석위주로 씌어져 史實을 우선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독자로서는 취사선택이 요구된다.

### 국내 연구성과 너무 미흡

국내연구자에 의한 각국사의 연구성과는 앞서 지적했듯이 일천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일관된 편집방침 아래



서점에 나와 있는 세계각국사 연구서들. 번역물이 대부분인 가운데 국내저술도 점차 늘고 있다.

짜임새 있는 개별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교과서가 '세계사 각국 시리즈'라 이름한 이 기획은 국내의 해당국가 역사연구자에 의해 씌어진 통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사 각국 시리즈' 기획의 실무자인 이종국씨(출판 2부차장)는 "외국과의 접촉이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국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기획이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한국사를 포함한 16개지역의 역사를 전공교수들이 집필, 지금까지 5권이 나왔고 나머지도 곧 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획에 따라 출간된 책을 살펴보면, 「미국사」(이주영 지음, 1987)는 지금까지 미국사에 대한 지식이 연구서의 부족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한 측면을 지적하면서, 미국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을 보다 자세하고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씌어진 책이다. 「동유럽사」(이정희 지음, 1987)는 동구사 전체에 대한 광범위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개설서로 동독을 제외한 동구7개국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다. 「중동사」(김정희 지음, 1987)는 '문명의 수원지'에서 '세계의 화약고'로 전락한 중동지역 역사에 배어있는 영광과 좌절을 개괄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밖에도 서구사상과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이 초래한 특수언어지역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북유럽사」(변광수 지음, 1988)와 「스페인·포르투갈사」(강석영, 최영수 지음, 1988)가 각각 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이 엮은 「강좌중국사」(지식산업사, 1989)는 우리 史眼에 의한 최초의 중국통사라는 점에서 값진 기획이며, 연구논문수준이 현단계 동양사학계를 대표하고 있어 각국사의 전범이 되고 있다. 중국역

사를 36개의 주제로 압축한 이 책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을 시대흐름에 따라 엮은 '논문식 통사'다.

강동진의 「일본근대사」(한길사, 1985)는 일본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통사는 아니지만 저자의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책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본근대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일제의 해외침략과정과 이에 대한 아시아민족들의 민족해방운동이 동태적으로 밝혀져 있다.

기왕의 동양사연구가 중국사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베트남사」(유인선 지음, 민음사, 1984)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외세에 의한 식민지배 및 남북분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와 비슷한 베트남의 역사를 전설시대로부터 1945년까지 다루었다.

### 활발히 전개될 각국사연구

세계 각국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외국학계의 연구성과에 빚지고 있던 저간의 사정은 '국내연구자의 양적인 부족과 학문역량의 미흡'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즈음 높아가는 일반인들의 각국사에 대한 지적 욕구에 힘입어 국내연구자에 의한 각국통사가 씌어지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사를 집필하고 있는 나종일교수(서울대·서양사학)는 "근래에 들어 우리 관점에서 세계 각국사를 집필하려는 연구열이 왕성해졌다"고 말하면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편향된 세계사적 안목을 교정, 국내연구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세계 각국사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권우 기자

# '소리글' 중심의 연령별 유아문학

## 시청각효과 극대화 꾀한 「위대한 탄생」 전14권

글과 말, 그리고 그림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자극과 교육적 효과를 세심하게 배려한 '세계유아문학대전집' 「위대한 탄생」 전14권(口演카세트테이프 24개 포함)이 최근 도서출판 보림(대표 권중택)에서 출간됐다.

'아동도서'라는 종래의 통칭에서 보이는 애매한 포괄성을 지양, 차별화 및 세분화로의 보다 진전된 단계를 나타내는 이 전집은 아이들의 인지발달을 고려한 연령별 편집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0~3세, 4~5세, 6세 이상, 종합기능개발편 등 모두 4부로나는 가운데, 앞의 3부는 그 각각을 다시 세계명작 12권, 세계창작 12권, 한국전래동화 6권, 한국창작 6권씩으로 구성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창작동화의 경우는, 안전과 소속의 욕구·성취의 욕구·사랑과 애정의 욕구·이해의 욕구·심미적인 욕구 등 아이들의 5가지 기본욕구를 끌고루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유아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상황과 의문, 정서를 생동감있게 다룬 '생활동화' 및 '과학동화'를 대폭 수용해 크게 돋보인다. 제4부 '종합기능개발편'은 글 없는 그림동화 12권, 퀴즈 및 추리동화 12권, 그리고 특수기법을 이용한 틀그림책 12권으로 구성돼 있다.

출판사측에서 이 전집의 간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7년부터. "아이



들의 연령별 이해력에 합당한 동화들을 체계적으로 집성함으로써 단순한 흥미나 지명도에 따라 편의적으로 추출한 작품들을 모아 제작한 종래 동화집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것이 그 기획의 의도였다. 이같은 기획의도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 이 전집은 문학은 물론, 언어학과 음성학, 심리학과 교육학 등에 걸친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광범하게 원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재철(단국대·아동문학), 김경중(우석대·아동복지), 강문희(서울여대·아동학), 이원복(덕성여대·일러스트레이션), 구학봉씨(문교부 유아교육담당관) 등 사계 전문가들의 참여로 '유아문학세미나' 및 수차례에 걸친 편집실무팀과의 토론회를 열어 그 성과를 이번 전집의 제작에 충실히 반영했

다.

연령에 따른 권별 전체 어휘수의 제한 같은 것이 그 좋은 보기가 된다. 가령, 0~3세용 책에서는 이 시기 아이들의 집중력 지속시간이 8초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 펼친 페이지 단위당 40字 이상이 들어가지 않게 해 아이들이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녀와 나무꾼」처럼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도 200자 원고지 3~4매 안에 「매끄럽게」 축약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 卞至堅주간의 말이다.

의성어나 의태어 중심의 '대화체 유아어'로 문장을 구성한 것도 이 전집의 빠뜨릴 수 없는 특징이다. 가급적 지문(해설)을 배제한 '소리글'에 중점을 두으로써, 잘 다듬어진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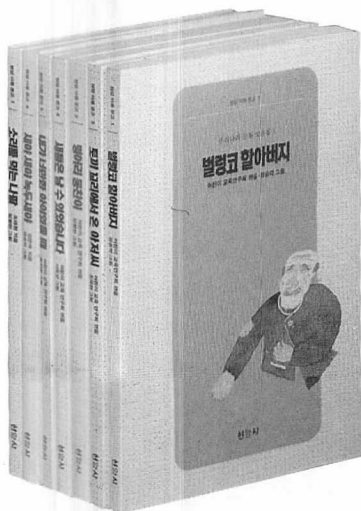
보다는 유아들이 실생활에서 구사하는 말을 그대로 재현해내 친근감을 느끼도록 했으며, 그것을 다시 색동어머니회 회원들의 구연에 담아 시청각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전집은 세계각국의 수준높은 일러스트레이션작품들을 끌고루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돋보이는데, 편집실무팀이 직접 수차례의 해외출장을 나가 현지의 서점이나 출판사에서 기획의도에 걸맞는 작품들을 선별해 왔다고. "에초엔 144권 전체를 국내작가의 창작일러스트로 채울 작정이었으나, 그림의 톤이 비슷하고 단조로울 것 같아 해외작품에도 눈을 돌리게 됐다"고 밝히는 신지건주장은 "원화의 분위기를 손상치 않기 위해서 판형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선별했다"고 말한다.

이와함께 이 전집은 각권의 말미에 일일이 유아교육 전문가의 도움말을 실어 그 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실제적 도움이 되게 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소화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날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위대한 탄생」은, 유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들로 차려진 진수성찬이라 할 만하다.

## 주제별 아동문학 앤솔로지

### 어린이교육연구회 등의 「현암아동문고」



호화장정의 대형전집물과 비현실적인 억지웃음을 자아내는 명랑소설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동도서시장에 최근 기획의 참신성이 돋보이는 단행본형 아동문고가 선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3년 사이 무크 「더불어 사는 어린이」, 어린이 글모음 「엄마, 아빠 그건 싫어요」 등을 펴내며 아동도서출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던 현암사(대표 조근태)의 「현암아동문고」시리즈가 그것으로, 이번에 나온 것은 「별령코 할아버지」 「토끼꼬리에서 온 아저씨」 「병어리 동찬이」 「새들은 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만한 아이였을 때」 「새야 새야 녹두새야」 「소리를 먹는 나

팔」 등 모두 7권.

이 가운데 앞의 5권이 '어린이교육연구회'라는 교사 및 서울교대 재학생들모임의 주도 아래 일정한 주제로 묶어진 동화 및 동시 앤솔로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역사를 빠르게 알기 위한' '사회를 빠르게 보기 위한' '더불어 사는 삶을 그린' 등이 권별 주제인데, 지난해 겨울방학동안 30여 회원의 참여로 해방 이후 발표된 거의 모든 아동문학작품을 읽고 카드화하는 작업 끝에 각각의 주제에 걸맞는 작품을 골라낼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회측의 설명이다. "작업의 규모가 컸던데 비해 막상 건져낸 작품의 분량이 적어 아쉽다"고 말하는 회원 金炳一씨(서울 동북국교 교사)는 "앞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우리와 정서적으로 공동된 부분이 많은 외국의 아동문학작품을 엮어내는 일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엮어낸 책들이 주로 국민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학년용 글모음도 계획하고

있다고.

제5권까지가 어린이교육연구회의 편지인데 반해 제6권 「새야 새야 녹두새야」(김은숙), 제7권 「소리를 먹는 나팔」(조대현)은 모두 국내작가의 창작물이다. 그러나, 동학혁명을 이야기로 꾸며 쓴 장편동화 「녹두새」, 현대사회의 물질문명을 비판한 중·단편 동화모음 「나팔」이라는 점에서 이 책들 역시 흔히 보는 '명작동화'류와는 구별되는 일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현암아동문고」에 대해 출판사측은 그것의 간행이 "끝이 없을 것"임을 밝히면서 "어린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리고 우리 삶의 진솔함에 밀착된 작품들을 꾸준히 단행본으로 펴내겠다"고 말하고 있어 이미 100권이 넘어선 「창비아동문고」(창작과비평사) 등 기왕의 이 방면 책들과 더불어 우리 아동도서의 새 활로를 여는 값진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